



\*\*\*

2002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사업장 산재감소를 위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와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진다. 지난 12월 27일 안산에서 개최된 6번째 위험성평가 경진대회에서도 한 단계 진화됨을 어김없이 보여준 대회로 평가 받고 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본다.

##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지킴이로 자리 잡고 있는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취재·사진 | 최종덕 기자

개 회사를 통해 백일천 회장은 관리사업장 2007년 재해율이 0.3%에 진입한 경이로  
은 성과에 대해 이미 산업현장과 국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산업재해 없  
는 2008년을 당부로 시작된 제6회 위험성평가 대회는 초반부터 그 열기가 뜨겁다.

발표에 앞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각자 준비해 온 노트북 앞에 집중  
하고 또 집중한다.

지역 예선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4명과 차점자 중 최고 점수 획득자 2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출전한 이날 위험성평가 대회는 안전에서 환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의 위  
험성평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기업의 경제적 사정으로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안전관리 개선 자금 지원 정책을 이용한 개선 사례도 현실성이 있어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안전의식이 다소 부족한 경영주 설득을 통해 성공적인 위험성평  
가를 수행했다는데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의 온상이라고 일컫는 중소기업사업장 안전  
관리에 새로운 안전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안전 미래가 보인다.





금상 - 성남지회 고창백 계장



은상 - 경기남부지회 양경섭 과장



동상 - 전북지회 김현수 대리



동상 - 충남북부지회 김 환 대리



장려상 - 경기남부지회 전해인 차장



장려상 - 제주지회 김중우 계장



### 총평... 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 개선 방법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사업장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전협회의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는 정부가 위험성평가를 법제화 하는데 고무적인 일이며, 곧 법제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안전협회 관리사업장의 재해율이 0.3%에 진입에서 더 진보하여 2008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오늘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금상 성남지회 고창백

먼저 큰상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함께 고생하고 도와준 성남지회 장동주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4M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관계자의 큰 관심과 격려 없이는 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허락하고 개선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업장 관계자분들께도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M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4M 위험성평가 기법이 전사업장에 적용되어 근로자의 안전과 행복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